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EC공정거래위원회, 보험사업자 비경쟁담합금지 강화

- EC공정거래위원회(EC's Competition Department)는 그간 비경쟁담합금지의 예외 대상이었던 보험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해 일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새로운 보험사업자담합예외법(New IBER: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)을 시행한다고 발표함.
  - 기존의 보험사업자담합예외법(Old IBER)은 EC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정당성 조사를 거쳐 2개 조항은 수정되었으며, 나머지 2개 조항은 삭제됨.
  - 'Old IBER'는 2010년 3월31일자로 폐지되며, 'New IBER'는 2010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7년간 유효하며, 2010년 9월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임.
- 담보위험비용의 공동산정, 경험생명표 및 질병·상해·장애율 등 통계산정을 위한 정보교환, 공동보험 인수를 위한 풀(pooling) 형성은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경쟁담합금지의 예외로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함.
  - 예외조치가 유지되는 조항들은 경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기로 함.
  - 담보위험비용의 공동산정(joint calculation)은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(joint compilation)되었으며, 통계산정을 위한 정보교환은 소비자 또는 계약자 단체의 요청시 공시하도록 수정함.
  - 보험사업들은 그간 면밀한 검토 없이 공동보험을 형성(blanket protection)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EC공정거래위원회와 각국의 금융당국의 엄격한 모니터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.
- 표준약관(standard policy conditions) 작성, 보안장치(security devices) 설치를 위한 공동협정은 기타 금융권에게 역차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'New IBER'에서 삭제한다고 밝힘.
  - 현재 보험을 제외한 일반 금융권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공동협정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임.
  - 한편, 유럽보험협회(CEA)는 가이드라인에 의해 구속 받을 경우 보험사업자간 협정은 급격히 감소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함.

(Financial Times 3/25, EC's Competition Department 3/24)